



# ●● 침터의 장

생활의 지혜 \_ 지혜 스피치(아라비안나이트)  
고사성어 \_ 진외사지[震畏四知]  
한권의책 \_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영화 이야기 \_ 빨간 모자의 진실  
연극 공연 \_ 웃는 연극 <상당한 가족>  
바둑묘수풀이 \_ <후절수>의 맥을 이용하는 수  
등산안내 \_ 봉화산  
골프안내 \_ 드라이버①



생활의 지혜

## 지혜 스피치-아라비안나이트

21세기는 자기표현의 시대다. 말에 의한 자기표현이 부족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난감한 일을 겪게 된다. 삶의 목표와 비전, 내면의 혁신을 위해 스피치는 매우 중요하다.

### ※ 아라비안나이트의 탄생과 지혜 스피치

「아라비안나이트」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신드바드의 모험', '알라딘과 마술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등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그 이야기는 배경이 중동지역이라는 것과 낯선 의상으로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과 더불어 색다른 호기심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처럼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었던 「아라비안나이트」의 출생지는 치열한 전쟁이 발발했던 이라크의 바그다드다. 6세기에 페르시아에서 모아진 1,000종류의 이야기들이 8세기에 이르러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그러면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추가되어 내용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15세기에 이르러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인도와 중국을 통치하면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샤푸리 야르왕에게는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간 사이 그 왕비가 흑인노예와 정을 통하고 말았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너무 격분한 나머지 왕비와 노예를 칼로 베어 죽여 버렸고, 그런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죽이겠노라고 이를 갈았다.

그것이 자신을 배반한 아내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여겼던 까닭이다.

그는 매일매일 예쁜 여자를 궁에 데려와 잠을 잤고 동이 트면 함께 잠자던 여자를 죽여 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많은 여자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고 모든 여자들이 왕에게 불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신의 딸인 세헤라 자데가 자신이 왕에게 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주변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헤라 자데는 무슨 속셈이었던지 자신 있게 왕의 처소로 가겠다고 단호히 말했던 것이다.

예쁘게 단장을 한 세헤라 자데는 왕의 침실로 들어갔고 어서 자자고 재촉하는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쩌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샤푸리

야르왕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며 이야기의 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 새 동이 트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왕에게 세헤라 자데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밤에 계속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에 흠뻑 빠진 왕은 그날 밤을 기다렸고 또 다시 동이 트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지나 1,000일 하고도 하루가 지나갔다.

결국 역사 이야기를 비롯하여 교훈담, 연애담, 여행담, 범죄단, 신선담 등 여러 가지 이야기와 우화를 들은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세헤라 자데와 결혼하여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세헤라 자데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한 사람의 파멸을 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사푸리 아르왕의 진실한 경청도 단단히 한몫을 하였다.

아라비안나이트의 탄생 배경이 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사푸리 아르왕의 질문이다.

만약 질문이 없었다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말의 쿠션이 대화의 단단한 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다.

목숨을 건 세헤라 자데의 스피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누구는 재미있게 전달하는 반면, 덤덤하게 줄거리만 전해주는 사람도 많다.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은 영화를 본 것보다 더 흥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듯 묘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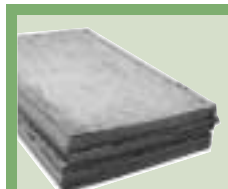
실감나게 묘사하는 테크닉은 상대방의 감각을 일깨워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말을 잘 하는 사람은 회화적 요소를 듬뿍 가미하여 이야기의 맛을 한층 더 높일 줄 안다.

간혹 지하철에서 만나는 판매상들을 보면 말하는 테크닉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누가 듣거나 말거나 시선을 허공에 두고 마치 기계를 틀어놓은 듯 무미건조하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승객들도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승객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호소하는 듯 리듬과 박자를 넣어가며 말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낸다.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말하는 사람은 그 삶이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이현정의 「성공화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 중에서]



고사성어

## 진외사지 [震畏四知]

어떤 비밀이든 하늘과 귀신과 나와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한 양진과 술과 여자와 재물, 이 세가지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양병에 관한 이야기.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한나라 사람인 양진은 수재라는 관리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자리에 나가 옮겨 다닌 지 네 번만에 형주의 장관이 된 후, 그 뒤 동래군의 장군이 되었다.

바로 그 군으로 가는 도중에 창읍현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전에 자신이 형주의 장관일 때 수재로 조정에 천거해 주었던 왕밀이 창읍현의 장관으로 있어서 양진을 만나러 왔다.

밤이 되자 왕밀은 품에서 황금 열 근을 꺼내 양진에게 주었다.

양진은 그 황금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네를 추천한 것은 자네를 잘 알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자네가 나의 사람됨을 모르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왕밀이 이렇게 말했다.

“벌써 날도 저물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양진이 이렇게 꾸짖었다.

“자네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나도 알고, 자네도 알고 있네. 그런데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

왕밀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나갔다.

이렇게 양진의 성품은 공정하며 청렴결백해서 몰래 주는 선물은 결코 받지 않았으므로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자식들은 거친 먹거리를 먹고, 밖에 나갈 때도 수레나 말을 탈 수 없어 걸어 다녔다.

양진의 오랜 친구들 가운데에는 그에게 뭔가 다른 일을 해서 재산을 자 손에게 남겨주라고 했지만, 양진은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나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 대신에 후세의 사람으로부터 그들은 청렴결백한 관리의 자손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고 싶네. 이와 같은 평판을 자손에게 남긴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은혜가 아니겠는가?”

양진은 안제 때는 국방을 담당하는 벼슬인 태위가 되었다. 그러나 천자의 비서관인 중상시 범풍이라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서 벼슬을 빼앗기고 평민으로 세상을 마쳤다.

또한 양진의 둘째 아들인 양병은 자를 숙절이라 하고, 환제 때 국방을 담당하는 태위 벼슬에 임명되었다.

조정 정치가 잘못될 때마다 성의를 다해서 간언했는데, 환제가 대개는 받아들였다.

양병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젊었을 때 아내가 죽었으나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인정이

많고 결백한 사람으로 칭찬 받았다.

어느 날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바로 술과 여자와 재물이다.”

청렴한 관리로 최고의 벼슬인 태위 자리에까지 올랐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다.

옛날부터 대체로 관리의 부수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지방 수령을 3년 하면 손자까지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더구나 양 씨 부자가 살던 시대는 대대로 천자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환관과 외척 세력이 강하고 혼란스러웠다.

최고 벼슬인 삼동을 포함해서 모든 벼슬자리를 사고 팔 정도였으니, 그들의 결백증은 시대에 대한 저항 의식도 담겨 있다.

예전에는 사또의 횡포보다 무서운 것이 아전들의 횡포였고, 지금의 횡포보다 마름의 횡포가 더 무서웠다고 한다.

아랫자리이고 무보수이면서도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청렴하다고 하면 가난을 연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식에게 모범을 보인 아버지와 그 가치관을 이어 받은 자식 모두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가족이 모든 일이 시작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속이려 해도 “하늘과 귀신과 나와 상대방이 안다(四知)”는 구절이나 술과 여자와 재물의 세 가지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三不惑)”는 구절은 오늘날의 공직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경우이다.

[이한의 「지혜를 두드리는 인생의 아홉 가지 문 풍구」 中에서]



### 한권의 책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출가 50년, 법정 스님의 잠언 모음집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누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는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법정 스님의 글과 법문들에서 130여 편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가려 뽑았다.

2006년, 법정 스님 출가 5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획된 이 책은 내용을 법정 스님과 가까이 지내는 류시화 시인이 엮고,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명상적인 사진들로 본문과 표지를 장식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시와도 같은 이 잠언집은 무소유, 자유, 단순과 간소, 홀로 있음, 침묵, 진리에 이르는 길과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로 채워져 있다.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하면 단순하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의 가르침들이 행간마다에서 읽는 이를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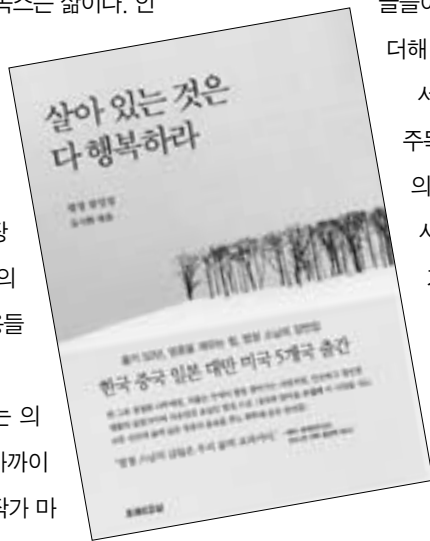
소나무 숲에서 며칠 산림욕을 경험한 것처럼 영혼을 맑게 하는 글들이 인상적인 사진과 어우러져 그 깊이를 한층 더해 준다.

서양에서 불교의 새로운 스승으로 법정 스님을 주목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이 책은 한국에서의 발간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출간을 준비 중이고, 각 나라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출간될 예정이다.

중국어 번역은 중국 문화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한 노홍금(盧鴻金) 씨가 맡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연수평가원,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사 생활을 하

고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는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일본에서는 법정 스님의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를 일본어로 옮긴 고노 스스무(河野 進) 씨가 번역을 맡았다. 1939년 도쿄에서 태어나 한국의 목포, 원주, 서울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51



년부터 다시 일본에서 생활한 고노 씨는 소피아 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거쳐 30여 년 동안 출판사에서 근무했고, 일본의 대표적인 자연주의자 아마노 산세이(山尾三省)와 가까이 지냈다.

미국에서의 출간을 책임지고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현재 미시건 대학 동아시아학 박사학위를 가르치고 있는 메티 베게하우프트(Matty Wegehaupt) 씨가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문학 석사와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인 아내로부

터 법정 스님의 글을 소개받고 스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

이밖에도 이 책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출간 계획을 갖고 번역자들과 접촉 중이다. 이 잠언집이 각국에서 출간되면 나라와 언어를 초월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의 삶에 큰 스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자 / 법정스님, 역자 / 류시화, 출판사 / 조화로운 삶]



### 영화 이야기

## 빨간 모자의 진실

누구나 알고 있는 클래식 동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슈렉’ 스타일로 패러디한 가족용 애니메이션이다.

웨인스타인 형제가 독립하여 만든 웨인스타인 컴퍼니의 첫번째 가족용 애니메이션인 이 영화는 나름대로의 화려한 성우진을 자랑하는데,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프린세스, 앤 해서웨이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맡았고, 명배우 글렌 크로즈와 <스카이 하이>의 패트릭 워버튼이 각각 할머니와 늑대의 목소리 연기를 담당했으며, 작고한 전설적 코메디언 존 벨루시의 동생인 제임스 벨루시와 <캐겨루 잭>의 앤소니 앤더슨, 랩그룹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출신의 지비트(<트리플엑스 2>) 등이 성우진에 동참하고 있다.

연출은 코리 에드워즈-토드 에드워즈 형제와 토니 리치가 공동으로 담당했는데, 모두에게 이번이 극장용 영화 데뷔작이다. 미국 개봉에선 첫주 2,394개 극장으로부터

마틴 루터 킹 연휴 주말 4일 동안 1,688만불의 수입을 기록,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빨간모자의 진실>은 ‘빨간모자(Little Red Riding Hood)’를 단단히 비틀기로 작성하고 덤벼드는데, 이야기는 원작의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동물세계의 경찰관들은 할머니 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대상은 빨간모자 소녀, 늑대, 나무꾼, 도끼 등이고, 혐의 사실은 평화를 파괴한 일, 잡아먹으려 덤벼든 일, 그리고 허가증 없이 도끼를 휘두른 일 등이다.

닉키 폴리퍼스가 이끄는 경찰팀이 당시의 사건을 하나하나 파헤칠수록 포복절도할 비밀과 반전이 밝혀지는데…….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뉴욕 스타-레저의 스티븐 위티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잠들어갔다”고 빈정거렸고, 할리우드 리포터



의 마이클 레흐트샤펜은 “이 영화는(빠져 나올) 가망이 없을 정도로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만다”고 비난했으며, 아틀란타 저널-컨스티튜션의 엘레노어 링겔 길레스피는 “슈렉 스타일로 어른 관객들을 노린 농담들은 지루하기만 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월터 V. 아디에고는 “약간의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극히 진부하다”고 평했고, 뉴욕 데일리 뉴스의 제이미 버나드는 “호리멍당한 캐릭터 디자인과 평범한 작화, 아주 조금뿐인 재치”를 지적했으며,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의 리암 레이스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값이 싼 아동용 컴퓨터 게임처럼 느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 줄거리

빨간 모자 소녀의 모험담은 유년기에 맞볼 수 있는 최고의 모험담 중 하나였다. 앓아 누운 할머니께 드릴 음식을 싸 들고 길을 나



선 소녀가 할머니를 잡아먹은 뒤 할머니인 척 위장한 늑대를 만나지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해피엔딩을 맞는다는 이 이야기를 <빨간 모자의 진실>은 결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슈렉>이 이미 성공을 거둔 기발한 상상력으로, 빨간 모자 소녀의 모험담은 추리스릴러로 탈바꿈한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잊으라며, <빨간 모자의 진실>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물 세계의 경찰관들은 빨간 모자 소녀의 할머니 집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다.

경찰들의 수사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빨간 모자 소녀는 (알려졌던 것과 달리) 그리 순수하지만은 않다.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보니 늑대를 악당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할머니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인품과 거리가 있었다. 수사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며 웃음을 낳는다.



연극공연

웃는 연극 <상당한 가족>

웃는 연극이라는 의미인 프랑스 소극, 마님의 모친상(원작: 조르주 페도)을 번안한 작품으로 국내 초연이다. 이번 작품은 배우 전무송과 가족이 모두 출연, 연출하는 첫 번째 작품이며 프랑스 소극이 갖는 시트콤적 성향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배우 전무송은 연기 인생 45주년을 맞아 특별 출연하며, 삶의 구도자라는 그 동안의 짐짓 무거운 캐릭터를 잠시 벗어나 코미디 연기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한 연출은 아역배우 출신의 사위 김진만(호랑이 선생님), 말



많고 탈 많은 부부인 두 주인공으로는 SBS 탤런트인 딸 전현아(여인천하 금이 역), 배우인 아들 전진우(베니스의 상인, 맥베드)가 맡아 온 가족이 하나의 연극 무대에 함께 서는 초유의 공연이 될 것이다.

웃는 연극 <상당하 가족>은 한 밤중이라는 특별한 한정적 상황 설정에, 출연 배우 각각의 캐릭터를 극대화 한 연극이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대사, 돌발적이고 과장된 액션 등이 가미되어 한바탕 웃음전쟁으로 극을 몰아간다.

엉뚱하고 허영에 찬 남편 시영(전진우)과 철없는 아내 분녀(전현아)의 다툼은 극 전체를 이끌어 나가며, 조선(전무송)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관객의 재미는 극도에 달한다. 현 세대의 물질만능세대, 노인홀대, 이기주의 등을 가법지만, 신랄한 비판을 담아 코미디로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이다.

■ 시놉시스

우스꽝스런 차림으로 파티에 갔던 남편 시영이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온다. 남편의 늦은 귀가로 갑작스레 선잠을 깬 아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한참 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며 새로 온 운전수 조섭이 분녀 어머니의 부음을 알리러 등장한다. 분녀는 기절하고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부부는 초상집에 갈 준비를 시작한다. 막 집을 나서려

는 찰나 조섭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는 두 사람의 부부싸움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며,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데…….

■ 웃는 연극-소극(笑劇)이란?

웃음을 매개로 하는 문학 장르 가운데 이런 웃음의 특성이 가장 풍부하게 적나라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극(farce)이다. 웃음의 예술을 지향하는 소극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황과 장난기를 발동하여 모든 규제와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위선이나 기득권을 향유하는 계층의 권위를 희화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특징을 지닌다.

소극의 세계에는 무엇보다 전복을 뜻하는 인간의 웃음이 녹아 있다. 때로는 독립적 장르로서, 때로는 희극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프랑스 연극에 참여해 온 소극은 모든 세기에 걸쳐 연극 무대에 등장하여 큰 성공을 거두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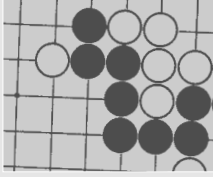
삶의 뿌리 깊숙이 내재한 민중들의 생생하고 적나라한 형상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소극이 본질적으로 민중적 장르로서 민중의 정신에 의해 민중의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공연안내

△공연기간 : 2006년 3월 17일~2006년 4월 16일  
 △공연시간 : 화·수·목 19시 30분시 / 금·토 16시 30분, 19시 30분 / 일 15시  
 △공연장소 : 사다리아트센터 세모극장  
 △문의 : 극단 꼭두 / 02-741-6779





바둑묘수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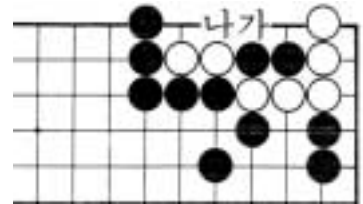
〈후절수〉의 맥을 이용하는 수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욕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꿀을 면치 못한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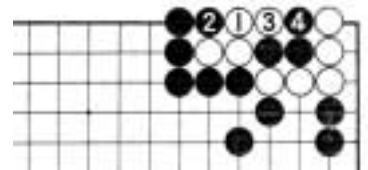
白선, 실전에서는 드물지만 멋진 맥이 있는 문제이다. 무조건 살리는 수를 찾아보기로 한다.

※힌트 / 白가는 黑나로 집이 되지 않는다. 따먹힌 자리에서 수가 생기는 〈후절수〉의 맥을 활용한다.



[정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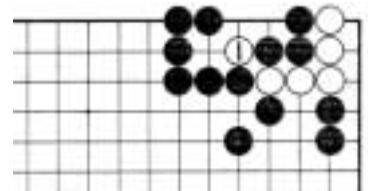
우선 白1로 빠져, 黑2로 두게 한 다음 3, 4로 키워 죽이는 것이 후절수의 서곡(序曲)이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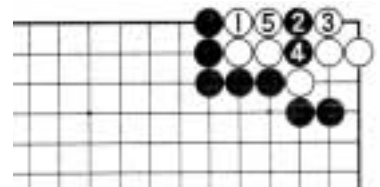
정답도의 黑4로 따낸 자리에 白1로 단수치면 黑 석 점은 살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白은 무조건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종류의 맥은 〈문제 풀이〉에서 꽤 많이 나오는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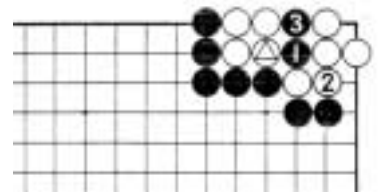
[참고 1도]

이것도 그와 같은 문제의 보기이다. 白5로 黑 두 점을 따고 난 뒤가 재미있다.



[참고 2도]

黑1로 잡힌 자리에 먹여 칠 때, 白2로 잇고 白 3로 따내게 하는 것이 교묘하다. 그리고 黑이 따낸 자리의 4의 곳이다 白4로 끊어 白이 살 수 있다. 잡고, 잡히는 것의 연속이다.





## 등산 안내 봉화산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736m이다. 부용산(882m)에서 남쪽으로 능선이 뻗어 있는데, 이 능선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부용산 외에 오봉산(779m)과도 능선이 이어져 있어, 종주 등반도 가능하다. 산의 북쪽을 제외하고는 소양호로 둘러싸여 있어, 정상에서의 조망이 시원하고 아름답다.

산행을 하려면 소양강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청평사 입구나 부귀리에서 산행할 수 있다. 청평사 선착장에서 서쪽 길로 가면 청평사로 가는 길이다.

동쪽 길을 따라 작은 고개를 넘으면 작은 능가가 나온다. 이곳에서 왼쪽 계곡길을 따라 오르면 동굴이 있는 기도터에 이른다. 여기서 하우고개와 616봉을 거쳐 봉화산 정상에 닿는다.

정상에서는 북쪽으로 오봉산과 부용산이, 동쪽으로는 바위산(858m)과 매봉(800m)이, 남쪽으로는 소양호 너머로 멀리 대룡산 능선이 보인다.

하산은 왔던 길로 되돌아 내려가거나, 부귀리 외딴집을 거쳐 하우고개에 닿은 다음 청평골로 내려간다. 부귀리를 거쳐 청평골로 하산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부귀리 선착장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물안리계곡을 지나 하우고개에 이른다. 이곳에서 616봉을 거쳐 정상에 오른다. 하산은 하우고개를 거쳐 청평골로 내려가거나, 다시 부귀리 물안리계곡으로 내려간다.

부귀리로 하산하는 코스는 정상에서 동쪽으로 난 능선을 따라 내려간다. 부귀리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오른 다음 청평골로 내려오는 코스는 약 10km 거리로, 4시간 정도 소요된다.

교통편은 서울 상봉터미널에서 춘천행 버스를 이용하고,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소양강댐까지 간다. 소양강댐에서 청평리까지는 배가 30분 간격으로 있으나, 부귀리까지는 하루에 두 번 운행한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청량리역이나 성북역에서 경춘선 열차를 이용한다.

숙박을 하려면 청평골이나 부귀리 물안리계곡의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민박도 가능하다. 산을 둘러싸고 있는 소양호는 유원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여러 위락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골프 드라이버 ①

# 스윙의 기본은 움직임 속의 안정감

### 비거리를 늘리는 어퍼 블로우

드라이버에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퍼 블로우로 볼을 잡아야 한다. 어퍼 블로우는 스윙의 최저점이 볼의 바로 앞에 오는 타법이다. 클럽헤드가 스윙 아크의 최저점을 통과하여 스윙이 올라가는 점에서 볼을 잡는 것이다. 드라이버의 경우 스윙의 최저점이 티업하고 있는 볼의 2개 정도 앞이다.

티업의 높이는 바닥에 붙인 클럽헤드에서 볼의 상반부가 나오는 것이 표준이다. 어퍼 블로우로 치는 데는 그보다 약간 높게, 볼의 위치도 왼발꿈치의 선보다 조금 왼쪽으로 간다.

티업한 볼은 바로 위에서가 아니라 조금 뒤에서 본다. 머리를 볼의 후방에 위치해서 자세를 취하고 볼을 비스듬히 보고 플로우드로우를 높게 잡고 친다. 얼굴 왼쪽에 벽을 만들고 상체가 왼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스윙하는 것이 요령이다.

다만 밑에서 건져 올리듯이 치면 볼의 머리를 때리게 되어 볼은 올라가지 않는다.

어퍼 블로우로 친 볼은 높이 올라가며 게다가 백스핀은 경감한다. 체공거리가 길어짐과 동시에 볼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도 잘 굴러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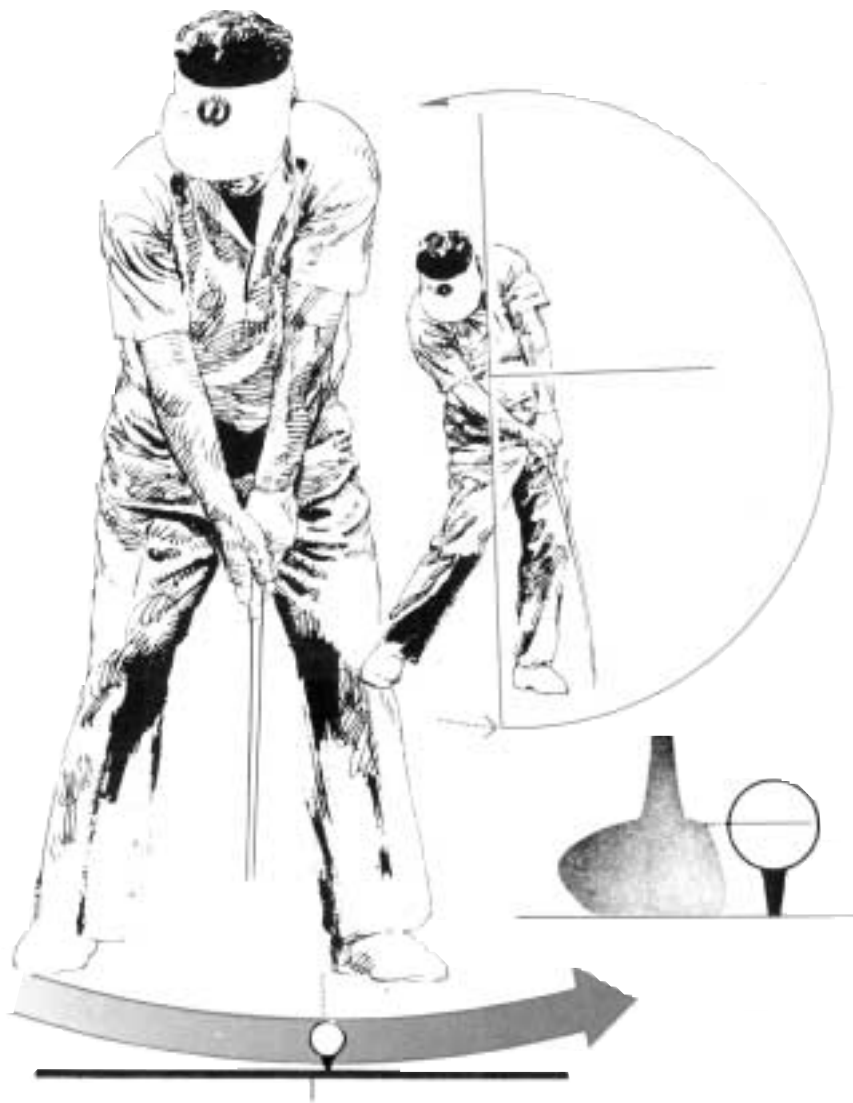
어퍼 블로우는 볼을 왼발꿈치의 선보다 발끝 쪽으로 놓고, 티업은 높다. 머리는 볼 뒤에 두고, 크게 한껏 쳐낸다.

### 정확하게 치는데는 사이드 블로우

비거리보다도 드라이버 샷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이드 블로우로 치는 것이 좋다. 사이드 블로우는 스윙의 최저점에서 볼을 잡는 타법이다.

머리의 위치는 어퍼 블로우와 마찬가지로 볼의 뒤인데 플로우 드로우는 그다지 높게 잡지 말고 티업도 표준 높이로 한다.

사이드 블로우는 어퍼 블로우에 비해서 클럽헤드를 낮게 쳐내는 것이다. 사이드 블로우의 티업 위치는 왼발꿈치 앞이 알맞다.



사이드 블로우에서도 볼은 왼발꿈치 앞. 티업의 높이는 보통 어퍼 블로우의 스윙만큼 머리를 볼 뒤에 두지 않는다. 플로우 드로우는 좀 작은 듯하게